

선지서 해석

저자: 리차드 프렛 2 세 (Th.D., Harvard)

역자: 이창배 (Ph.D., UCLA)

번역 후원: Ankur Lee-Vakil (Son-in-law)

제 3 강

언약의 사람들



THIRD MILLENNIUM
MINISTRIES

Biblical Education. For the World. For Free.

© 2012 by Third Millennium Ministries

All rights reserved. No part of this publication may be reproduced in any form or by any means for profit, except in brief quotations for the purposes of review, comment, or scholarship, without written permission from the publisher, Third Millennium Ministries, Inc., 316 Live Oaks Blvd., Casselberry, Florida 32707.

Unless otherwise indicated all Scripture quotations are from the HOLY BIBLE, NEW INTERNATIONAL VERSION. Copyright © 1973, 1978, 1984, 2011 International Bible Society. Used by Permission of Zondervan Bible Publishers.

ABOUT THIRD MILLENNIUM MINISTRIES

Founded in 1997, Third Millennium Ministries is a non-profit Evangelical Christian ministry dedicated to providing:

Biblical Education. For the World. For Free.

Our goal is to offer free Christian education to hundreds of thousands of pastors and Christian leaders around the world who lack sufficient training for ministry. We are meeting this goal by producing and globally distributing an unparalleled multimedia seminary curriculum in English, Arabic, Mandarin, Russian, and Spanish. Our curriculum is also being translated into more than a dozen other languages through our partner ministries. The curriculum consists of graphic-driven videos, printed instruction, and internet resources. It is designed to be used by schools, groups, and individuals, both online and in learning communities.

Over the years, we have developed a highly cost-effective method of producing award-winning multimedia lessons of the finest content and quality. Our writers and editors are theologically-trained educators, our translators are theologically-astute native speakers of their target languages, and our lessons contain the insights of hundreds of respected seminary professors and pastors from around the world. In addition, our graphic designers, illustrators, and producers adhere to the highest production standards using state-of-the-art equipment and techniques.

In order to accomplish our distribution goals, Third Millennium has forged strategic partnerships with churches, seminaries, Bible schools, missionaries, Christian broadcasters and satellite television providers, and other organizations. These relationships have already resulted in the distribution of countless video lessons to indigenous leaders, pastors, and seminary students. Our websites also serve as avenues of distribution and provide additional materials to supplement our lessons, including materials on how to start your own learning community.

Third Millennium Ministries is recognized by the IRS as a 501(c)(3) corporation. We depend on the generous, tax-deductible contributions of churches, foundations, businesses, and individuals. For more information about our ministry, and to learn how you can get involved, please visit www.thirdmill.org

선지서 해석

제 3 강 언약의 사람들

목차(Contents)

I. 서론(Introduction)	1
II. 언약 안의 인류(Humanity in Covenant)	1
A. 핵심적인 관심사들(Central Concerns)	2
1. 아담(Adam)	2
2. 노아(Noah)	3
B. 선지자들의 의거(Prophets' Dependence)	5
1. 열국의 죄들(Sins of the Nations)	5
2. 열국의 구속(Redemption for the Nations)	6
III. 언약 안의 이스라엘(Israel in Covenant)	7
A. 아브라함(Abraham)	7
1. 핵심적인 관심사들(Central Concerns)	8
2. 선지자들의 의거(依據 Prophets' Dependence)	8
B. 모세(Moses)	9
1. 핵심적인 관심사들(Central Concerns)	9
2. 선지자들의 의거(依據 Prophets' Dependence)	9
C. 다윗(David)	10
1. 핵심적인 관심사들(Central Concerns)	10
2. 선지자들의 의거(依據 Prophets' Dependence)	11
D. 새 언약(The New Covenant)	11
IV. 언약 안의 구원(Salvation in Covenant)	12
A. 언약 밖의 공동체(Outside Covenant)	13
B. 언약 안의 유형 공동체(Visible Covenant)	14
C. 언약 안의 무형 공동체(Invisible Covenant)	17
V. 결론(Conclusion)	20

선지서 해석(He Gave Us Prophets)

제 3 강 언약의 사람들(The People of the Covenant)

I. 서론(INTRODUCTION)

틀림없이 여러분은 “사람들만 없다면 이 일이 참 좋을 텐데.”라고 말한 목회자에 대한 옛 농담을 들어보았을 것이다. 그것은 삶의 많은 영역에서 볼 수 있는 양상이다. 삶이란 상대해야 할 사람들이 없다면 참 좋을 것이지만, 우리의 현실은 사람들로 부터 벗어날 수 없다. 삶은 우리 주변의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루어진다. 그것은 구약의 선지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였다. 선지자들도 사람들을 다루었다.

이런 이유로 이번 강의의 제목은 “언약의 사람들”이다.¹ 우리는 세 가지 개념을 검토할 것이다. 첫째로, 우리는 언약 안의 인류, 곧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과 모든 사람 사이의 언약 관계를 어떻게 보았는지 살필 것이다. 둘째로, 우리는 언약 안의 이스라엘, 곧 언약 관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슨 특별한 역할이 주어졌는지 살필 것이다. 셋째로, 우리는 언약 공동체 안의 구원을 살필 것이다. 그럼 먼저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모든 인류를 어떻게 이해했는지 살펴보자.

II. 언약 안의 인류(HUMANITY IN COVENANT)

우리가 사람들에 관하여 아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그들이 서로 다르다는 것이다. 우리는 다른 문화 배경들을 갖고 있고 다른 개성들을 갖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인 어떤 것도 있음을 알고 있다. 우리 모두는 배고픔을 느낀다. 우리 모두는 친구를 필요로 한다. 우리 모두는 세금을 낸다. 선지자들도 이것이 그 당대 사람들에게 그대로 적용됨을 알았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분의 특별한 백성으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선지자들은 지상의 여러 민족이 주님께 의해 다르게 다루어졌음을 깨달았다.

¹ [역자 주] 이 강의에서 다루는 언약에 대한 보다 더 광범위한 논의를 위해 <http://korean.thirdmill.org/>에 실린 **구약 일반 총론: 나라와 언약들과 정경**이란 강좌의 **제 3 강 하나님의 언약들을** 참고하라.

그러나 동시에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함한 지상의 모든 민족들과 언약 관계를 맺으셨다는 것도 이해했다.

이번 강의의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이 우주적인 언약들을 탐구하며 선지자들이 이 언약들을 지상의 민족들에게 어떻게 제시했는지 살펴볼 것이다. 기독교인 그룹마다 언약들을 다르게 다루지만, 많은 기독교 전통들은 구약에 5대 언약 사건이 있다고 본다. 이 사건들은 성경의 역사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다섯 번에 걸쳐서 하나님은 대표자들을 통하여 자신과 백성 사이의 언약을 맺으셨다. 이 대표들은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이었다.

A. 핵심적인 관심사들(CENTRAL CONCERNS)

구약의 처음 두 언약인 아담 언약과 노아 언약은 우주적인 언약이기 때문에 다른 언약들과 구별된다. 이것들은 하나님과 모든 인류 사이에 맺어진 언약이었다. 그것들은 한 특정 민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었다. 그것들은 하나님과 앞으로 살게 될 모든 사람 사이에 영구적인 협정을 세웠다. 이 우주적 언약들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언약 사절로 섬길 때 그들에게 중요한 신학적인 방향을 제공했다. 이 우주적 언약들을 탐구하면서 우리는 두 가지 문제를 살펴볼 것이다. 첫째로, 이 우주적 언약들의 핵심적인 관심사들은 무엇이었는가? 둘째로, 선지자들은 이 언약들에 의거(依據)하여 어떤 사역을 하였는가? 그럼 먼저 아담 언약과 노아 언약의 핵심적인 관심사들을 살펴보자.

1. 아담(Adam)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언약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세우신 언약이다. 이 언약은 전통적으로 "행위 언약"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 시대에는 이것을 언약으로 불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신학자들이 많다. "언약"이란 용어가 창세기 1-3 장에서 사용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또한 아담과 맺은 이 언약에 행위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 포함되어 있다. 어쩌면 이것을 하나님께서 자신과 아담 사이에 세우신 "협정"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나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아담의 시대에 하나님은 성경의 모든 역사의 전반에 걸쳐서 유효한 어떤 대들보들을 세우셨다.

아담 시대에 성경의 전체 역사를 통해 지속되는 적어도 세 개의 대들보들이 세워졌다. 이 대들보들은 인간의 책임, 인간의 타락, 인간의 구속이다. 첫째로, 하나님은 아담 시대에 인간의 책임을 규정하셨다. 하나님은 인간을 그분의 형상으로 창조하시어 땅에 두셨다. 창 1:26 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해 처음 말씀하실 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창 1:26 개역개정).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따라서 이 세상에서 그분의 통치를 대리할 책임이 있다. 인간은 땅의 모든 지역에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성경의 다른 모든 부분과 더불어, 선지서도 모든 민족의 모든 사람이 아담 시대에 이 신성한 책임을 부여받았다고 이해했다.

이 외에도, 아담과의 협정은 모든 사람이 타락한 것도 입증했다. 성경의 전체 역사가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듯이, 창세기 3 장의 사건은 아담과 하와의 삶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로마서 5 장이 가르치는 바와 같이 아담의 죄 때문에 전 인류는 죄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되었다. 선지자들은 세상의 민족들이 그들의 창조주를 외면하고 그분의 형상으로서 그들의 책임을 외면해 버렸던 것을 알아보기 위해 멀리 볼 필요가 없었다.

이 외에도, 아담과의 협정은 인류를 위한 구속의 소망도 확립했다. 창 3:15 에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사악한 뱀을 저주하셨다. 거기서 하나님은 언젠가 하와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부수어 버릴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악과 죽음에 대한 궁극적인 승리가 땅의 모든 민족에게 임할 것임을 깨달았다. 인간의 책임, 타락, 구속이란 이 기본적인 대들보는 모든 역사에 있을 하나님과 인간의 상호 작용의 구조들을 세웠다. 그것들은 인류 전체로 확장된다.

2. 노아(Noah)

이제 하나님과 노아 사이에 맺어진 두 번째 우주적 언약의 주요 관심사에 주의를 기울여보자.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은 아담과의 협정의 구조들을 촉진하셨지만 물리적인 우주를 위한 안정성이란 특징을 추가하셨다.

홍수 후에 하나님은 인간이 범죄할 때마다 즉시로 전멸시키지는 않으실 것임을 보여주시기 위해 구름 가운데 무지개를 두셨다. 오히려 하나님은 새로운 질서를 세우시며 우리의 죄들에 대하여 참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창 8:22 에서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선언하셨다.

(창 8:22) 땅이 있는 한, 심음과 거둠,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그치지 않을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는 자연계의 안정을 보장하는 이러한 약속을 하셨는가? 그분의 핵심적인 관심사는 무엇이었는가? 노아 시대에 주어진 우주의 안정에는 적어도 두 가지 주요한 이유가 있다. 첫째로, 하나님은 인류에 대한 그분의 인내를 보여주고 계셨다. 이러한 목적은 창 8:21 의 다음과 같은 말씀에서 분명해진다.

(창 8:21) 여호와께서 마음 속으로 다짐하셨다. “사람의 마음의 계획이 어려서부터 악할지라도 내가 다시는 사람 때문에 땅을 저주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다시는 이번에 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이 구절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전적 부패를 인정하시지만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세상을 파멸시키지는 않으심으로써 우리에게 대하여 참으시기로 결정하셨다는 점이다.

노아 언약에는 자연계의 안정에 대한 두 번째 목적 또한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형상으로서 섬기는 인간적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질서 정연한 세상을 주셨다. 창세기 9 장 1 절과 3 절은 홍수 후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조상인 노아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다. 거기서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창 9:1, 3)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 . 이제 나는 모든 것을 너에게 준다.

창세기 1 장에서 아담에게 처음 하신 말씀을 바탕으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모든 민족이 그분의 형상으로 섬길 책임을 단언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며 땅의 모든 민족이 그분의 형상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인류에게 안정된 세계를 제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본다.

성경에 나오는 첫 언약들의 주요 관심사는 매우 비슷하다. 아담 언약에서 하나님은 인간의 책임, 타락, 구속의 대들보들을 세우셨다. 이 원리들을 존속시키시며 하나님은 노아 언약에서 그분의 인내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우리의 소명에 대한 재확언을 주셨다.

B. 선지자들의 의거(依據 PROPHETS' DEPENDENCE)

이제 우리는 두 번째 질문을 해야 한다. 구약의 선지자들의 사역은 어떻게 이 우주적 언약들에 의거하였는가? 우리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아주 자주 아담과 노아를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음을 인정해야 한다. 대체적으로 아담 언약과 노아 언약에서 유래된 신학적 관점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한 것의 배후에 암시적으로 놓여 있다. 선지자들이 이 언약들에 의거했던 가장 중요한 측면은 아마도 이방 나라들에 대한 그들의 관심에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 사절들로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국가에게 대부분의 관심을 집중했지만, 그들은 또한 세계 각국에 대한 사절들이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불러 사역하게 하실 때 렘 1:5 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렘 1:5) 나는 너를 열국의 선지자로 세웠다.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노아와 맺으신 우주적 언약의 사절들이었기 때문에 자주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예언했다.

1. 열국의 죄들(Sins of the Nations)

열국에 대한 선지자들의 관심은 두 방향으로 나아갔다. 첫째로, 일반적으로 선지자들은 열국의 죄를 지적하고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했다. 예를 들면, 오바다서 전체는 에돔의 죄를 폭로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는데 전념한다. 요나서는 요나가 니느웨 성을 위해 사역하였다고 전한다. 나훔은 앗수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했다. 다른 선지서들의 상당 부분들이 이스라엘 이외의 다른 나라들에게 임할 여호와의 진노에 초점을 맞춘다. 많은 구절들은 선지자들이 모든 민족이 죄 많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믿었던 것을 분명히 밝힌다.

2. 열국을 위한 구속(Redemption for the Nations)

심판의 주제가 선지자들의 열국에 대한 예언에서 눈에 띄게 많을지라도, 우리는 또한 두 번째 주제인 열국을 위한 구속의 주제도 기억해야 한다. 선지자들은 자주 지상 열국을 위한 커다란 복이 임하는 미래에 대하여 말했다. 그들의 관점에서 보면 미래는 모든 족속과 방언을 위한 구속의 희망을 품고 있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오직 한 민족만 죄의 사망의 지배로부터 구원받는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인류를 위한 원래의 계획의 성취에는 항상 모든 민족으로부터 사람들을 구속하실 작정이 들어 있었다.

이런 이유로,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로부터 구속받을 큰 복의 날을 고대했을 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들의 많은 사람들이 포로 생활로부터 벗어나는 이 큰 구속에 참여할 것을 내다보았다. 예를 들면, 사 25:6-8 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미래의 어느 날에 일어날 일을 다음과 같이 선언했다.

(사 25:6-8 개역개정)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실 것이고 . . .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렘 3:17 에도 이와 비슷한 주제가 나온다.

(렘 3:17 개역개정)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의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다

많은 선지자들은 이방인들조차도 하나님께 대한 반역을 회개할 날이 올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들은 이스라엘로 와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의 구원을 찾을 것이다. 두 말할 나위도 없이,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는 이 약속이 온 세상의 도처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일을 통해 성취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사도들에게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대사명을 주셨을 때, 그분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땅의 열국에 대해 품었던 긍정적인 소망들을 성취하고 계셨다.

이렇게 우리는 아담과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우주적 언약을 맺으신 것을 보았다.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의 사절들로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께 대한 열국의 심각한 범죄들에 주의를 기울였다. 그러나 그들은 또한 어느 날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족속과 나라로부터 사람들을 구속하실 것이라고 선언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노아를 통해 모든 사람과 언약을 맺으신 것을 살펴보았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에 주의를 기울이려고 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과 어떤 언약들을 맺으셨는가?

III. 언약 안의 이스라엘 (ISRAEL IN COVENANT)

종종 우리 가족은 신학생들을 위한 파티를 열지만, 어떤 때는 학생 명단이 너무 길어서 우리가 직접 개별 학생에게 다 연락을 하지는 않았다. 그 대신 우리는 몇몇 핵심 학생들을 택하여 그들로 다른 학생들에게 연락을 하도록 했다. 많은 점에 있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이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핵심 민족이었고, 하나님은 자신에게로 이스라엘을 부르시어 특별한 언약들을 맺으시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모든 민족을 섬기며 하나님께로 그들을 부를 수 있도록 하셨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세 가지 주요 언약들을 맺으신 것을 기억할 것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을 통하여 언약들을 맺으셨다. 이 언약들은 각기 특별한 방식으로 이스라엘을 자신의 구원뿐만 아니라 땅의 모든 민족의 구원을 위해 준비시켰다. 그럼 먼저 아브라함의 언약을 살펴보자.

A. 아브라함 (ABRAHAM)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은 이스라엘이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로운 구속을 전하기 위해 선택된 민족임을 확인해 주는 첫 번째 언약이란 점에서 특별했다. 그들은 어떻게 이 일을 행할 것인가? 그것은 여호와와 맺은 구속적 언약 안에서 사는 것을 통해서이다. 우리는 먼저 아브라함 언약의 핵심적인 관심사들을 살피고, 다음으로 구약의 선지자들이 아브라함 언약에 의거해서 예언 사역을 한 방식들을 고찰할 것이다.

1. 핵심적인 관심사들(Central Concerns)

우리는 아브라함 언약을 하나님께서 한 특별한 민족을 선택하신 언약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 세운 것에는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주신 두 가지 주요한 복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많은 후손과 특별한 땅을 약속하셨다. 창세기 15 장과 17 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은 이스라엘이 많은 후손을 증가시키고 약간의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길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후손의 증가와 특별한 땅의 소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온 세상으로 확장시키는 출발점이 되는 것이었다. 이 시점부터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후손과 땅은 성경 역사에서 주목을 받았다.

2. 선지자들의 의거(依據 Prophets' Dependence)

우리는 아브라함이 많은 후손과 특별한 땅을 약속받았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이제 우리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 아브라함 언약에 의거하여 어떻게 예언 사역을 했는지 질문해야 한다. 그들은 이 언약에 대하여 무엇을 믿었는가? 거듭거듭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언약의 원리들에 의지했다. 이 언약의 지속적인 중요성은 모든 선지자들에 의해 가정되어 있다. 선지자들은 자주 땅에 대한 약속과 많은 후손에 대한 약속에 대해 말했다.

예를 들면, 사 41:8 에서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음과 같이 부르신 것을 전한다.

(사 41:8 개역개정)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사야의 생각에는 그 자신의 시대에서도 이스라엘 민족은 아브라함 언약의 적법한 후계자였다. 이와 비슷하게 호세아도 아브라함 언약에 대하여 넌지시 말했다. 호 1:10 에서 선지자 호세아는 포로기 이후에 있을 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호 1:10 개역개정)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 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은 암시들은 선지자들이 아브라함 언약에 크게 의거하였음을 보여준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땅을 주시거나 그들의 수를 증대시키는 일에 관하여 말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했다. 아브라함이란 이름은 구약의 선지서에서 7 번밖에 언급되지 않았지만, 아브라함 언약의 신학은 선지자들의 사역 전반에 스며들어 있었다.

B. 모세(MOSES)

아브라함 언약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맺으신 첫 번째 언약이라면, 그 뒤를 이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두 번째 언약은 모세 언약이다. 우리 시대에 모세 언약이 항상 긍정적인 시각으로 평가되는 것은 아닌데, 이보다 더 진리에서 동떨어진 것은 없다. 모세 언약은 인류의 적극적인 구원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다시 한 번 우리는 먼저 모세 언약의 핵심적인 관심사들을 살피고, 다음으로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 언약에 의거하여 어떻게 예언 사역을 하였는지 고찰할 것이다.

1. 핵심적인 관심사들(Central Concerns)

모세 언약은 하나님의 율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나님의 율법은 이스라엘의 언약의 삶을 지배하는 규정들을 제공했다. 이 언약은 출애굽기 19-24장에 가장 명시적으로 나온다. 여기에서 모세 언약은 십계명과 언약서로 발의되어 있다. 그것은 또한 레위기의 예배 규정들로 나온다. 신명기는 모세가 죽을 무렵 이스라엘의 언약 갱신을 기록하고 있다. 간단히 말하면, 모세 언약은 언약의 삶의 규정들, 곧 크신 종주님인 하나님으로부터 올 복과 저주로 인도할 율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2. 선지자들의 의거(依據 Prophets' Dependence)

구약의 선지자들은 모세 언약에 의거하여 어떻게 예언 사역을 했는가? 구약의 선지자들은 모세와 그의 율법에 크게 빛을 지고 있었다. 왜냐하면 그의 율법은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책망할 때 주요한 표준들을 제공해 주었기 때문이다.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에게 모세의 율법을 충실히 지킬 그들의 의무를 상기시켜 줌으로써 그 언약을 시행했다. 다음 강의에서 보게 될 것이지만,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선언했던 구체적인 복들과

저주들조차도 대개 모세 언약에서 비롯되었다. 모세의 율법은 선지자의 사역의 주요한 도구가 되었다.

예를 들면, 이사야는 하나님의 백성이 여호와께 불충했음을 드러내고자, 권위있는 표준으로서 모세 율법에 호소했다. 사 5:24 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사 5:24) 그들은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다.

모세와 그의 율법에 대한 이런 종류의 언급은 선지서에 셀 수 없이 많이 나온다. 그것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사절로서 이스라엘을 불러 모세 언약을 위반한 것들을 책임지도록 했기 때문이다.

C. 다윗(DAVID)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민족으로서의 이스라엘에게 주신 마지막 언약은 다윗과 맺으신 언약이다. 아브라함 언약은 후손과 땅에 초점을 맞추었다. 모세 언약은 그 땅에서 살아가는 율법에 중점을 두었다. 모세 이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 다윗과 특별한 언약을 맺으셨다. 다시 한 번 우리는 먼저 다윗 언약의 주요 관심사들을 살피고, 다음으로 선지자들이 다윗 언약에 의거하여 어떻게 예언 사역을 했는지 살필 것이다.

1. 핵심적인 관심사들(Central Concerns)

다윗 언약의 주요 관심사들을 무엇이었는가? 다윗 언약은 하나님의 백성을 거대한 제국으로 세우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 다윗 언약은 사무엘하 7장, 시편 89편, 시편 132편에 나온다. 이 구절들은 다윗 언약의 아주 중요한 측면이 다윗 가문을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영원한 왕조로 세우는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분명히 다윗 가문에 문제와 부족한 것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가문을 그분의 백성을 다스릴 영원한 왕조로 택하셨다. 다윗의 후손들은 언젠가 전세계적인 구원의 나라를 세울 것이다. 말할 필요도 없이, 이 언약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땅에 대한 승리와 지배라는 매우 밝은 미래를 제공했다. 오늘의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들도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며 따른다. 왜냐하면 그분은 다윗의 마지막 위대한 자손이시고, 다윗의 완벽한 자손이시며, 그분의 나라는 결코 끝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2. 선지자들의 의거(依據 Prophets' Dependence)

이제 우리는 또 다른 질문을 해야 한다.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에 의거하여 어떻게 예언 사역을 했는가?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을 위해 사역할 때 자주 다윗 언약에 의지했다. 선지자들에 관한 한, 하나님은 다윗의 나라가 궁극적으로 웅장하고 세계적인 나라가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그들은 이 약속을 매우 굳게 믿었고, 그것이 미래에 언젠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언했다. 예를 들면, 암 9:11 에서 아모스 선지자는 포로기 이후에 회복의 날들을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암 9:11 개역개정) 그 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울 것이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다윗 언약에 관하여 여러 번 이런 식으로 말했다. 다윗 언약은 그들에게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그들은 다윗이란 이름을 34 번 언급하였다.

D. 새 언약(THE NEW COVENANT)

물론 구약의 선지자들도 아직 그들의 미래에 있을 한 언약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태만하고 부주의한 사람이 될 것이다. 여기서 나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맺으신 언약인 새 언약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 새 언약의 주요 관심사들은 무엇이었는가? 새 언약은 성취라는 한 단어로 특징지을 수 있다.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과 맺으신 더 이른 언약들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모든 약속들은 새 언약의 시대에 실현되도록 되어 있었다. 하나님의 백성은 셀 수 없이 많아질 것이고, 온 세상을 그들의 땅으로 상속받을 것이다. 모세의 율법은 그들의 마음에 쓰여지고 마음으로부터 지켜질 것이다. 다윗의 자손, 아니, 다윗의 위대한 자손이 보좌에서 영원히 다스릴 것이다.

이 새 언약은 선지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 웅대한 언약의 날을 갈망했다. 예를 들면, 렘 31:31 에서 예레미야는 새 언약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다.

(렘 31:31) 여호와와의 말씀이다. “보라, 날들이 이를 것이다. 그때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이렇게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포로기 이후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그분의 언약을 새롭게 하실 것이라고 예언했다. 선지자 에스겔도 역시 이 미래의 언약에 대하여 말했다. 겔 34:25-26 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읽는다.

(겔 34:25, 26)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을 것이고 ... 내가 그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다가올 종말의 위대한 언약을 내다보며 하나님의 사절들로서 사역했다. 우리가 구약의 선지자들에 대하여 배울 때, 우리는 그들이 이 새 언약을 대망하고 있었던 것을 자주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세우신 언약들은 선지자들이 하는 모든 일에서 그들을 인도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특별한 역할을 맡기셨고,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과 맺으신 언약들 그리고 심지어 새 언약까지도 이 특별한 역할에 대해 이스라엘을 인도했다고 이해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섬길 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과 세우셨던 이 특별한 언약들의 테두리 안에서 사역했다.

언약의 사람들에 관한 이번 강의에서 지금까지 우리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온 인류와 맺으신 언약들과 또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들의 사절들로서 섬긴 것을 살펴보았다. 지상의 모든 사람은 우주적인 아담 언약과 노아 언약에 종속되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이스라엘 신앙으로 개종한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과 맺은 매우 특별한 언약들 안에 속했다. 그들은 나머지 인류와 구별이 되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언약의 사람들에 대한 다른 한 측면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것은 선지자들이 언약 공동체 안의 구원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하는 문제이다.

IV. 언약 안의 구원(SALVATION IN COVENANT)

현대 기독교인들은 언약 안의 구원을 이해하는데 자주 어려움을 겪는다. 그것은 선지자들이 따르지 않았던 구분을 하기 때문이다. 신앙 부흥 운동의 영향 아래 흔히 인류는 두 부류의 명확한 그룹으로 구분되어 왔다. 그 두

그룹은 구원받은 자들과 구원받지 못한 자들, 혹은 중생한 자들과 중생하지 못한 자들이다. 나의 말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구분은 사람들이 구원받았느냐 구원받지 못했느냐 혹은 중생했느냐 중생하지 못했느냐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동시에 이것들은 선지자들이 생각했던 범주들이 아니다.

선지자들이 구원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알아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세상에 세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구분하는 것이다. 첫 번째 그룹은 이스라엘이란 언약 공동체의 밖에 있는 사람들이다. 두 번째 그룹은 이스라엘이란 유형적 언약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 세 번째 그룹은 무형적 언약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

A. 언약 밖의 공동체(OUTSIDE COVENANT)

첫 번째 범주인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을 고려해보라. 사실상 이들은 선지자들이 따르던 분류에서 가장 명백한 범주의 사람들이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들 밖의 사람들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을 통해 특별한 언약들을 주셨을 때, 이러한 이스라엘의 선택은 지상의 다른 민족들이 선택된 백성 가운데 속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롯이나 라합과 같은 드문 예외를 제외하고,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백성과 구별되었고, 따라서 선민 이스라엘과 맺은 이러한 특별한 언약들 밖에 있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선지자들은 이방인들이 아담과 노아와 맺은 우주적 언약들에 묶여 있었다고 믿었다. 이 우주적 언약들에 있는 심판과 구속의 기본적인 구조들은 모든 민족에게 적용되었다. 그러나 동시에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이란 언약 공동체의 밖에 있는 사람들,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맺은 특별한 언약 관계 밖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의 가능성으로부터 단절되어 있었다. 그들의 죄는 그들을 세상에 소망없이 남겨두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와 같은 취지로 이방인들에 대하여 말했다. 엡 2:11-12 에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엡 2:11-12) 그러므로 그 때에 너희는 육신적으로 이방인들이었다는 것을 명심하라. . . 그 때에 너희는 그리스도와

분리되어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고 약속의 언약들에서 제외된 외국인들이었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명심하라.

이것이 구약 시대의 이방 민족들의 상황이었다. 그들은 언약 밖에 있었고 드문 예외를 제외하고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들을 통해 오는 구원의 가능성과는 거리가 아주 멀었다.

B. 언약 안의 유형 공동체(VISIBLE COVENANT)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이방인들을 언약 밖의 사람들로 생각하는 첫 번째 범주를 이해하는 데 별 어려움이 없다. 그러나 내가 아는 바로는 우리가 선지자들의 관점에서 보는 두 번째 범주의 사람들, 곧 이스라엘이란 유형적 언약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에 이르면 어려움이 발생하기 시작한다. 유형적 언약 공동체에 관하여 말할 때 우리는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에 속했던 모든 사람을 염두에 둔다. 이 범주에는 참 신자인 사람들과 참 신자가 아닌 사람들이 모두 포함된다. 이 언약의 범주를 안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옛적 개신교 신학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다.

옛적 개신교도들은 선지자들과 다른 용어들을 사용했지만, 과거의 개신교 신학자들은 이스라엘이란 언약 공동체에 대한 선지자들의 사고방식과 유사한 방식으로 교회를 묘사했다. 여기서 내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유형 교회”라는 전통적인 용어이다. 불행하게도 오늘날 이 용어는 많이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옛적 개신교도들에게 “유형 교회”라는 용어가 무엇을 의미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25 장 2 항은 “유형 교회”를 이렇게 묘사한다.

유형 교회는 전 세계적으로 참 종교를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과 그들의 자녀들로 구성되어 있다. 유형 교회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권속과 가족이다. 이 교회 밖에는 통상적인 구원의 가능성이 없다.

유형 교회에 대한 이 진술은 우리에게 유형적 언약 공동체의 두 가지 특징을 일깨워 준다. 첫째로, 유형 교회는 참된 신자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포함한다. 교회에 오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주장하지만, 이

불신자들은 그들의 기독교 신앙과의 연계에 의해 세상과 구별되어 있다. 그들은 자신들을 교회의 회원으로 등록해 놓지만, 여전히 그들의 죄로부터 영원한 구속을 받지 못한 상태로 있다.

이 외에도 유형 교회에 주어진 특별한 명칭들에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귀에 좀 이상하게 들리지만, 전통적인 개신교 신학에 의하면 신자와 불신자가 섞여 있는 유형 교회는 당연히 “교회,” “나라,”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으로 불릴 수도 있다. 현대 기독교 어휘에서 보통 이 용어들은 우리가 믿기에 참으로 중생하고 틀림없이 천국에 가는 사람들을 가리키는데 사용된다. 그러나 전통적인 신학에 의하면 이 용어들은 영원한 구속을 받은 여부와 상관없이 유형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포함하는 일반적인 명칭이다. 우리가 구약의 선지서를 읽을 때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이란 유형적 민족에 대해 비슷하게 생각했음을 보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

이러한 범주의 유형적 언약 공동체는 우리가 선지서들의 많은 단락들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예를 들면, 호세아서의 처음 장들은 유형적 언약 공동체를 묘사하는데 사용된 용어들의 현저한 대조를 보여준다. 호 1:3-9 에서 호세아 선지자는 북 왕국 이스라엘에게 임할 큰 저주들을 선언한다. 그는 끔찍한 저주들을 예고하는 이름들을 그의 세 자녀에게 줌으로써 저주를 선언한다. 그는 예후 시대에 있었던 파멸을 회상하며 한 아이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고 지었다.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겠다고 위협하고 계심을 상징하였다. 호세아는 둘째 아이의 이름을 로루하마라고 지었다. 그녀의 이름은 “하나님에 의해 사랑을 받지 못하는”이란 뜻을 갖고 있었다. 이 문맥에서 사랑이란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사이의 복되고 긍정적인 언약 관계를 묘사하는 용어였다. 이 아이는 하나님의 언약의 복들이 그 나라로부터 곧 취소될 것임을 상징했다. 호세아의 셋째 아이는 “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의 로암미라고 불렸다.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로부터 그분의 언약의 복들을 취소하심으로써 그분의 백성과 의절(/절연)하실 것이라는 위협을 상징했다.

그러나 동시에 호세아는 국외 추방이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떨어질 사람들에게 소망도 주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언젠가는

본토로의 귀환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시켰다. 이런 소망을 전하기 위해 호세아는 그가 자녀들에게 주었던 끔직한 이름들을 다시 한 번 떠올렸다. 호 1:10 에서 그는 이스라엘이 다시 일어설 것이라고 말하지만,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과 맞서 싸우시겠다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원수들과 맞서 싸우실 것이다. 이 외에도 하나님께서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자손을 본토로 돌려보내실 때, 호 2:1 에 의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에 의해 사랑받는” 루하마로 개명하실 것이다. 그 날에 “나의 백성이 아님(로암미)”이라고 불리던 자들이 “나의 백성”인 암미가 될 것이다.

호세아가 대조적인 용어들을 사용하여 유형적 언약 공동체에 대해 말한 것을 보는 것은 중요하다. 성경의 나머지 부분은 호세아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구원을 얻었다가 그것을 잃고 또 다시 구원을 얻은 것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 그 대신 이것은 언약 언어이다. 이 특별한 명칭들을 가지고 호세아는 하나님께서 언약의 복들을 취소하셨다가 어느 날 언약을 갱신하실 것이고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의 복들을 받을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다.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이란 유형적 언약 공동체에 적용했던 참 신자들을 위하여 우리가 통상적으로 우리의 어휘에 남겨둔 많은 용어들이 있다. 우리가 “선택된(elect)” 혹은 “택함받은(chosen)”이란 용어를 사용할 때, 우리는 보통 구원을 위해 선택된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런 뜻으로 선지자들이 그것을 사용한 적은 거의 없다. 그 대신 그들은 “선택된” 혹은 “택함받은”이란 용어를 참 신자의 여부와 상관없이 유형적 언약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을 묘사하는데 사용했다. 이런 이유로, 사 14:1 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읽는다.

(사 14:1) 여호와께서 야곱을 불쌍하게 여기실 것이다. 다시 한번 그분은 이스라엘을 택[혹은 선택]하실 것이다.

이사야가 이스라엘이 다시 선택될 것이라고 말한 것에 주목하라. 우리 귀에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선지자들의 어휘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에 의해 선택되고, 버려지고, 그 후 다시 선택될 수 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선지자들의 어휘에 있어서 하나님의 선택이란 구원을 위한 선택이 아니고 언약의 복을 위한 선택이기 때문이다. 선택된 자들은 유형적 언약 공동체

안에 있던 사람들이고, 그 공동체는 신자와 불신자 모두를 포함하였다. 신약에서조차도 때때로 “선택된”이란 용어가 이런 식으로 사용된다. 요 6:70 에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요 6:70) 내가 너희 열들을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의 한 사람은 마귀니라

여기서 예수님은 유다와 다른 사도들을 복의 특별한 언약 관계로 부르신 것에 대하여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영원한 구원에 관하여 말씀하신 것은 아니다.

C. 언약 안의 무형 공동체(INVISIBLE COVENANT)

이제 우리는 선지자들이 다루었던 세 번째 범주의 사람들, 곧 무형적 언약 공동체에 이르렀다. 다시 한 번 전통적인 개신교 신학은 우리에게 이 분야에 대한 도움을 준다. 유형 교회 안에는 “무형 교회”로 알려진 선택된 그룹이 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25 장 1 항의 표현에 의하면 무형 교회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무형 교회는 그것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로 모여 들어왔고, 모여 들고 있고, 모여 들게 될, 모든 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로 구성된다. 무형 교회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 그리스도)의 신부이고, 몸이고, 충만이다.

이 신앙 고백의 진술에서 무형 교회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묘사되어 있다. 그것은 영원의 관점에서 구원적 믿음에 이르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영원을 보낼 충만한 수의 사람들로 정의되어 있다.

무형 교회에 대한 이 진술에서 우리는 적어도 두 가지 기본적인 사상을 볼 수 있다. 첫째로, 무형 교회는 참 신자들로만 구성되어 있다. 이 참 신자들은 유형 교회 안에 있지만 구원적 믿음을 행사하고 그 결과 무형 교회의 더 작은 공동체로 들어간다. 둘째로, 우리는 무형 교회가 확실한 구원의 운명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에 마음을 바쳤기 때문에 그들의 구원은 끝까지 확실히 지켜질 것이다.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민족 안에도 유형적 언약 공동체와 무형적 언약 공동체 사이에 있는 이런 종류의 구별을 지적했다. 롬 9:6-7 에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롬 9:6-7) 왜냐하면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 사람인 것은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다 그의 자녀인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바울의 사상은 이렇다. 아브라함의 물리적 자녀가 되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에 속하도록 해 주었지만 구원을 가져올 만큼 충분한 것은 아니다. 아브라함의 참된 자녀는 아브라함처럼 구원적 믿음을 가져야 한다. 이 때문에 우리는 이스라엘 안에 있는 이스라엘, 곧 보이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하여 말할 수 있다.

무형 교회에 대한 이러한 개념은 구약의 선지자들의 생각과 유사하다.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똑바로 보며 무형적 언약 공동체가 있다고 믿었다. 이스라엘 민족 안의 어떤 사람들은 항상 신실했다. 그들은 구원적 믿음을 행사했기 때문에 신실한 남은 자였다. 민족 전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끔찍한 심판의 시기를 맞이할 때조차도 그들의 영원한 운명은 안전했다. 유형적 언약 공동체 안에 있는 구속받은 사람들에 대한 이러한 구별은 선지서의 많은 구절들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여러 번 선지자들은 눈에 보이는 언약 공동체에 단지 외적으로 몸담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진심으로 회개하고 영원히 운명이 고정된 보이지 않는 참된 신자들 가운데 속한 사람들을 구별했다. 예를 들면, 렘 4:4 에서 우리는 유형의 유다 나라에게 전해지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읽는다.

(렘 4:4)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의 가족을 제거하라. 그렇지 않으면 나의 분노가 불 같이 일어날 것이다.

예레미야가 유다 나라를 위해 사역할 때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육체적으로 할례를 받았다. 이 때문에 그들과 그들의 가족 식구들은 유형적 언약 공동체 안에 있었다. 그러나 동시에 예레미야는 대부분의 유다 백성의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지 못한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는 그들에게

참된 믿음을 통하여 그들의 마음에 할례를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으라고 권면했다.

선지자 에스겔도 이런 구별을 매우 분명하게 예시한다. 겔 18:31 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겔 18:31) 너희가 저지른 모든 죄악을 너희로부터 제거하고, 새 마음과 새 영을 가지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왜 죽고자 하느냐?

에스겔은 이스라엘의 육신적 자녀인 사람들에게 말했지만, 이것이 곧 그들이 영생을 받기로 작정된 구속받은 사람들이란 뜻은 아니었다. 이 때문에 선지자는 온 마음을 다해 깊고 진지하게 회개할 것을 촉구했다.

구약의 선지서를 읽을 때마다, 우리는 선지자들이 언약과 관련지어 구원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항상 기억해야 한다. 언약 안에 있다는 것은 구속받은 것, 곧 영원히 구원받은 것과 동일하지 않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사람들을 범주로 나눌 때 그들은 먼저 유형적 이스라엘 민족의 밖에 있던 이방인들에 대하여 생각했다.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얻지 못하면 잃은 자들이고 소망이 없는 자들이었다.

선지자들은 유형적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눈에 매우 특별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모든 육체적 자녀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종교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 모든 이방인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 유형적 언약 공동체에 참 신자들과 불신자들이 동시에 있었지만, 여전히 그것은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과 맺은 언약들의 복들과 의무들을 즐기도록 선택된 공동체이었다. 이것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구원을 찾을 수 있는 무대이었다.

이 외에도, 세 번째 범주 또한 선지자들의 생각을 지배했다.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민족 안에 무형적 공동체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의로운 남은 자들이고 참으로 믿는 신실한 자들이다. 비록 그들이 어려운 시절들을 겪었을지라도, 그리고 남은 자들이 자주 완전한 것과 거리가 멀었지라도, 여전히 그들은 아브라함처럼 여호와를 신뢰하였고 그들의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 자들이었다.

V. 결론(CONCLUSION)

우리가 선지서를 읽을 때마다 우리는 사람들을 세 가지 범주, 곧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과 유형적 언약 백성과 무형적 언약 백성으로 구분하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러한 구분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많은 혼동을 피할 수 있고 선지자들의 메시지에 대한 엄청난 통찰들을 얻을 수 있다.

이번 강의에서 우리는 선지자들이 언약의 사람들을 이해했던 방식과 관련된 많은 주제들을 다루었다. 우리가 살펴본 대로 그들은 모든 사람이 아담과 노아와 맺은 언약을 통하여 주님께 묶여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과 맺은 언약들 그리고 심지어 그리스도 안에서 맺은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매우 특별한 관계를 갖고 있었다. 그리고 우리가 관찰한 대로 선지자들은 사람들에게 대하여 우리가 보통 하지 않는 구분을 했다. 그들은 세상에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관점에서 생각했다. 그 세 종류의 사람들이란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 언약 안에 있는 불신자들, 언약 안에 있는 참된 신자들이다. 우리가 이러한 구분을 따라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기억한다면, 우리는 선지서의 말씀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오늘의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